

옷 벗기는 예술

- 정유장이의 내막 -



노 중 석

〈LG-Caltex 정유 기술개발기획팀장 · 연구위원 · 이사〉

9 인의 옷 벗는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오성 이항복도 말했다고, 비너스類의 여체 조각이나 그림·영화를 보고 우리는 예술이라고 지칭하며 향유하여 왔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세인의 관심이 예술로부터, 몇년전의 걸프사태에서 보았듯이, 전쟁의 참혹한 모습마저 마치 미인대회 즐기듯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는 바로 원유(怨油) 때문이었다. 인류문명생활의 모체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인류를 위기의식 속에 빠뜨린 그 悲戀과 오염의 주인공인 원유, 그 거무스레한 액체를 들여다가, 하나

하나 오염과 낙인의 옷을 벗겨줌으로써 원유 자체의 아름다움을 숨아내고 있는 藝術인이 바로 정유회사의 기술자들이다.

원유라는 표현은 미학적으로는 적당치 않다. 粗油(Crude Oil)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美油和 醜油가 뒤범벅이 되어있는 조악한 상태를 일컫기 때문이다. 이 粗油가 걸치고 있는 누더기 옷들을 벗기고 나면 油의 源泉美를 창조해 낼 수 있다.

粗油의 각 油分은 사실상 다이아몬드의 이복형제들인데, 이 油分의 옷을 벗기는 예술을 정유기술이라 부르며, 나신 비너스의 이름

다음에 외설이 아닌 예술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한 예술적 노력이 깃들여 있다. 粗油속에 섞여 있는 油分들은 다이어몬드의 성분(탄소:C)과 태양의 성분(수소:H)이 자유연애가 아닌 강제성 결합을 한 상태와 다름없다. 그 중 제일 단순한 형태는 다이아몬드 하나에 네개의 태양성분을 붙여 준 메탄(CH₄)인데, 이 결합은 우리가 콩당보리밥을 먹고 나면 뽀~옹하는 가죽피리의 선율과 그윽한 향토내를 풍기게 되는, 인간 內的 갈등의 외적표현의 주에너지 성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강제결합이 두번 겹친 2뽕 상태를 에탄

(C2H8)이라고 하고, 3뿡, 4뿡... 수 많은 형태가 있다. 이러한 수 많은 뿡들은 제각기 다른 옷을 꺼 입고 있으며, 산소, 질소, 황 등이 성분과 함께 복잡한 양상으로 粗油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옷이라는 것은 아름다워 보이려는 「치장」으로서의 의미가 짙다. 참 美人이라면 그다지 옷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물론 세련된 감각만은 갖고 있다. 하지만 옥떨 때 여인은 이웃 저웃에 관심이 많고 옷에 대한 집착력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어느 백화점이나 2,3층은 항상 들끓는다.)

粗油속의 각 油分들의 옷을 벗겨주기 위해, 사람이 더워지면 옷을 벗고 싶어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즉 粗油를 뜨겁게 덥혀준다. 그러면 각 油分은 수증기 가득한 목욕탕에서 전라의 모습이 된다. 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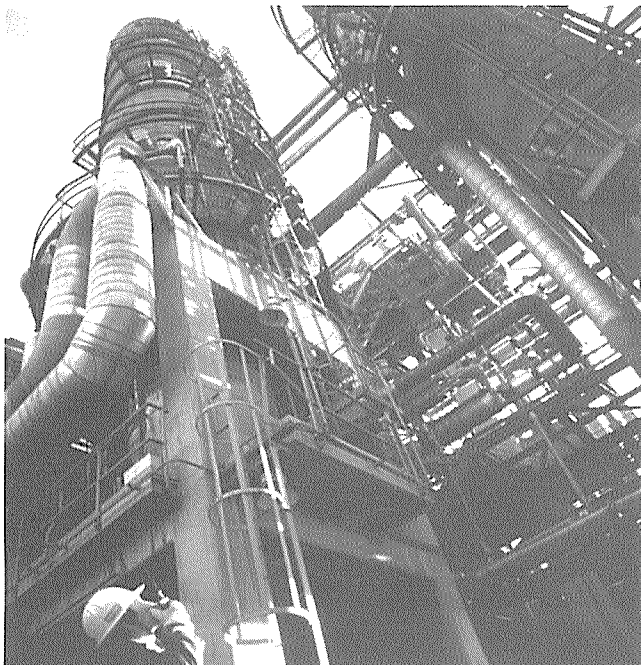
수가 작을 수록 몸매에 자신을 갖고 있으며 옷을 벗고 粗油를 이탈해 보려는 노출의욕이 강하다. 이 바람끼를 氣化力이라고 한다. 반면 뿡수가 높게되면 醜물질도 많이 함유하여 무거워지고, 옷을 벗지 않고 뜨거움을 참아내는 인내력(비등점)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粗油가 조금만 더워질 기미가 보이면, 1뿡부터 호들갑을 떨면서 튀어 나오는데, 1뿡에서 4뿡까지를 LPG라고 한다. LPG는 말하자면 노출욕구가 강하여 대기중에서는 알몸(기화상태)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들의 통칭이며, 바람끼가 심하여 강압적으로 압력 공기에 밀폐하지 않으면 취급이 곤란하다. 그중 1뿡은 끼가 워낙 심하여 LNG(액화천연가스) 또는 도시가스라고 따로 분리되어 정부(가스공사)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렇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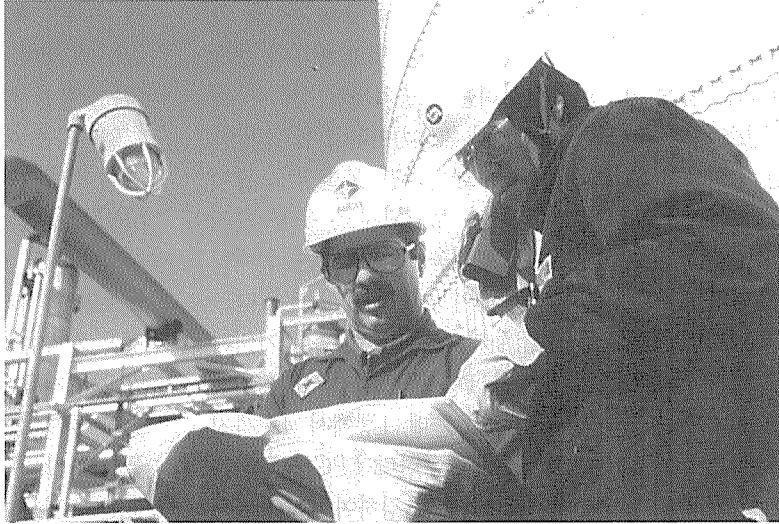
이 손대면 특하고 터질 것만 같은 LPG의 美에 주부는 3뿡을 택시업자는 4뿡을 열렬히 좋아한다.

열이라는 이름의 멋쟁이 정유엔지니어가 데이트를 청할 때에, LPG같이 출렁대지 않고 한번쯤은 사양을 하고, 어느 정도 熱의 도가 오르면 못이기는 척 따라 나오는 것이 휘발유의 모체가 되는 나프타라는 제품이며, 5뿡에서 9뿡 油分이 주종을 이룬다. 美油대회의 꽃인 휘발유는 사실상 나프타라는 美油 지망생 중에서 골라내어 승용차용으로 잘 가꾸어 놓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승차감을 중시하는 승용차의 연료로써 최적이다. 그러나 쿨대가 높고, 여차하면 기화상태로 토라질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세심한 사랑의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청정제, 산화 방지제, 옥탄가 향상제 등의 휘발유 첨가제로 선물공세를 펴며 환심을 사야 한다. 근래 들어 정유사마다 새로운 시대의 휘발유를 내고, 주유소도 새롭게 치장을 하고, TV광고에도 미남미녀가 출연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등, 휘발유는 한시도 눈을 떼어서는 금방 토라져 버리는 미인에 비유된다.

나프타는 일반 석유화학분야에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데, 야하면서도(뿡수가 적당하며) 천박하지 않고(액체상태) 뇌살스런 교태(살살 녹여주는 용제역할)가 있기 때문이다.



뿔의 수가 9-13 정도가 되면美人에 대한 열망 보다는 가정을 지키려는 성숙한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려 한다. 그래서 안정성·편리성이 똑같이 중요시되는 가정난방, 취사 등 등화연료로 적합하다. 이것을 등유



(Kerosene)라고 한다. 이보다 좀더 열이 가해져야 비로소 옷을 벗게 되는 것이 경유(Gas Oil)인데 그만큼 몸매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에 불이 붙으면 대단한 정열(화력)을 갖고 있다. 독일인 디젤이 이 대단한 정열에 탐닉하여 격렬한 사랑을 속삭인 결과 태어난 것이 디젤기관이다. 「디젤」과 경유와의 열렬한 사연을 기념하여 경유를 디젤유라고도 한다. 디젤유는 화끈한 대신에 좀 거친 폭발을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투박하기는 해도 강력한 애정표현이 필요한 대형차, 중장비에 안성맞춤이다.

정유예술가의 관점에서 보아 애처로운 것은 괜히 설움받는 중유이다. 중유는 웬만한 열을 받아도 옷을 벗지 않고 참아낸다. 즉, 노출(氣化)에 약하고 인내력(비등점)이

높다. 뿔수가 13 이상으로 워낙 비대한데다가 각종 부스러기 油分들과의 끈끈한 정 때문에 美油 선발에는 아예 관심도 없을 뿐더러 겨울도 안보는 탓이다. 중유는 주로 병커에서 은거하고 있어 「병커氏」(Bunker-

C)라고 놀려대지만 뿔덕어멈 이상으로 사랑에의 염원만은 지대하다. 그런데 불 붙이기는 지독히 어렵지만, 한번 붙었다 하면 헌신적으로 他油에서는 볼 수 없는 화끈한 열량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량급 아니면 감히 짝을 지을 수 없다. 화력발전소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밖에 항공유, 아스팔트 등 마릴린 몬로, 티나터너, 옹녀, 서시, 어우동 같은 미인과 대비될 수 있는 각종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유장어의 생활이다. 그런데 원유의 옷 벗기는 예술감각 없이 매일 매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수영복 코너를 배제시킨 미인대회를 보는 것과 같지 않을까? 정유의 작품이 가치가 높은 이유는 각 정유회사에서 세종대왕의 덕을 기리는 이외에 바로 「미」와 「멋」을

**정유예술가의 관점에서
보아 애처로운 것은
괜히 설움받는
중유이다.
중유는 웬만한 열을
받아도 옷을 벗지
않고 참아낸다**

정유제품 목욕탕의 내부

<예령> 상압증류탑 : 18층 아파트 높이(50m)와, 5-6평 정도 넓이의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분양기 준은 엄격한 미적기준에 의거하며, 특히 뇌물이 나 외부 압력은 일체 개입되지 못한다.

열에 대한 인내력(비등점)



로얄층 : 로얄층은 역시 석유화학·정유부문의 주연급 텔런트인 나프타·휘발유가 쓰게 된다. 휘발유를 위해서는 4면이 거울로 된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 미의 관리를 수시로 한다는 뜻이다. 휘발유가 사용하는 화장품(특수정제)은 기가 막힌 미색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유나 중유는 같은 화장품을 아무리 짝어 바르다 해도 서시효빈이 될 뿐이다.

중간층 : 「디젤」의 후광을 입고 정유공장 목욕탕에서 전체 1/4 정도의 분양면적(생산량)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력(판매액)은 전체 1/3수준으로 압권이다. 공업입국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제일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꼽긴 하지만 꽤 기특한 맛이 있다. 우람한 몸매도 보논이에 따라서는 더 자극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 비행기의 스텔어디스는 어인지 무드있는 여행을 연상케 하면서도(휘발유분), 사실상 체력을 요구하는(경유분)직업이다. 항공유는 그래서 휘발유와 경유의 중간상태이다.

아스팔트 : 중유와 호형호제하며 공손한 것이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이다. 이 암흑의 세계에서는 끈적끈적한 의미(密着度)가 매우 높다. 중유 및 지하실에서 전세로 사는 처지이다. 영종도 공항 건설이라든지 신도시 분양계획 발표 때마다 부수적으로 활기를 띠게 된다.

꼭대기층 : 꼭대기층에는 바랍끼(기화력) 높은 LPG가 차지한다. LPG의 몸매를 목욕탕 밖에서 음미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이목 때문에 압력용기 속에서나 가능하다. 애주가의 안주를 요리하는 데나 예연가의 라이더 연료로도 좋다.

휘발유 : 등산용 램프로 불을 밝히고 무드를 내고 싶을 때 등유가 연인이 된다. 어느 점에서나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용을 지키는 것이 특색이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준로얄층은 차지할 만하다.

중유 : 누가 이 중유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몸이 무거워 아예 계단을 오르내릴 의욕이 없어 바닥층만 찾는다. 40%의 지분을 할양 받았지만, 정부의 「탈석유」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제일 먼저 힘없는 자의 설움을 겪는다. 기동서방인 화력발전소가 원자력에 눈길을 주면 처량해진다. 중질유 분해시설(RFCC)은 이들을 대미한 북지후생판이다. 즉, 잘만 가꾸면 로얄층으로 미적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꿈을 주는 것이다.



즐길 줄 아는 고객 중심의 가치를 창조하려는 예술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유가 뜨거워지면 옷을 벗기 시작하고, 가볍고, 몸매에 자신이 있는 유분일수록 고층으로 올라간

다.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를 낮추게 되고, 몸무게(비중), 노출도(기화력), 인내력(비등점)에 맞추어 선별을 하게 된다. 제품의 품질은 바로 선별 기준 얼마나 엄격하느냐에 달려 있다. 각사의 기준은 정부의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는 상당히 노출에 자신이 있는 몸매를 선호하고 있고, 보는 이들의 눈을 좀더 만끽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고객의 취향이 그만큼 발랄하기도 하고 엄격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